

사무능력 관련 컴퓨터 및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비서사무관련 전공 재학생들의 취득현황 및 인식에 대한 실태연구

유근선*, 김경화*

요약

본 연구는 사무능력관련 자격증 중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에 초점을 두어 서울 및 수도권 6개 전문대학 비서사무관련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및 취업과 연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자격증 종류 및 형태, 그리고 자격증 관리체계의 문제점 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 출신고교에 따라 인문계 졸업자의 재학 중 자격증 취득률이 실업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MOS, 컴퓨터 활용능력 및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의 취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0%가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Status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cretarial and Office Majoring Students o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ertificates System

Keunsun You*, Kyung-Hwa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eneral understanding over the national license system focused on office professional sector. From this perspective, a survey had been conducted to capture the status and types of certificates attained by secretarial and office majoring students in 2 or 3 year colleges in Seoul and Kyonggi area. Types of high school of the respondents affect the rate of certificates achieved in college. Majority chose Computer Proficiency Certificate as the most helpful license in their job search followed by MOS and Word Processor. And 90% of students perceived the certificates they attained will be very helpful in their recruitment.

Keywords : Secretary and office related majors, qualification system, certificates, licence, computer and information

* 인덕대학교 비서관(✉keunsun@hotmail.com)

· 제1저자(First Author) : 유근선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유근선

· 접수일(2011년 5월 8일), 수정일(1차 : 2011년 6월 9일), 게재확정일(2011년 6월 14일)

1. 서 론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스펙쌓기 열풍은 국내에서 이미 일반화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이며 특히 대학생 대다수가 재학이나 휴학 중 외국어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대학생 5명 중 4명은 소위 '취업 과외'라고 불리는 별도의 훈련, 즉 정규 대학의 전공수업 외 학원 수강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도 발표된 바 있다[2].

이에 따라 자격증의 종류와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민간 자격증의 숫자만 1,70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리체계나 법령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허술한 점이 많아 발급 단체나 기관들이 취득 효과를 과장하거나 단순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자격증과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997년부터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해당분야 자격증 숫자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중 사무능력 관련분야 자격증들은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으로 1983년부터 민간기관인 대한 상공회의소에 위탁되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에 비해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활용을 뒷받침할 관련 법령은 턱없이 부족하고 허술한 실정이다[3]. 이러한 정황상 특히 민간자격증 중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종류와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파악과 검증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정보부재와 과열된 상흔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응시자들에게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이에 근거한 체계적 정보와 실효성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고등교육환경은 청년실업증가 뿐 아니라 입학 자원의 감소와 급격한 인구노령화, 출산율 급감 등 인구통계학상 다양한 변수로 인해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기관들은 예비 대학생 및 재학생 집단의 특성, 기대, 요구에 대한 정기적, 체계적 및 차별화된 파악노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및 제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서사무관련 전공은 철저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실용적 사회과학으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 간 연계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무실무현장의 기대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와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사무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등교육수준의 비서사무관련 전공들은 양적인 면에서 9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 시기를 정점으로 현재는 16개의 관련학과가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다[4].

급속한 정보지식화 흐름속에서 사회와 사무환경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및 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속화 되고 있는 정보화, 지식화 사회변화에 따라 사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사무인력으로서 갖추어야할 능력 중 컴퓨터 및 정보화 능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학내 개설된 관련전공에서는 이러한 실무현장의 변화와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개발과 시행을 통해 실무적응력이 높은 전문사무인력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전공자들이 대학 재학기간 중 취득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에 대한 종합적 현황파악을 위해 자격 및 자격체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후 컴퓨터 및 정보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 진로 지도방침설계를 위한 기초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무전문 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한 전공 경쟁력 확보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선행연구 및 관련 전공의 교과목 구성분석을 거쳐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3년제 전문대학에 개설된 비서사무관련 전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최고학년으로 이들의 관심 자격증 종류, 인식, 선호도 및 취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중 특히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관련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현장과 효과적인 연계방안 및 효과적 진로지도 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조사결과 파악된 선호 자격증들에 대한 사회적 실효성 증진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무 전문가, 교수진 및 검정담당 행정가들의 체계적 노력과 연구시행을 독려할 수 있는 구체화된 현황 자료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자격의 의미와 유형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다. 따라서 ‘자격’은 전문적 학술용어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국내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직업자격’을 ‘자격’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위나 졸업장 등은 자격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5]. 한편 OECD에서는 자격을 ‘학습 결과에 대한 인정 단위(Unit of recognized outcome of learning)’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서 학습은 공식적인 기관(학교, 대학, 기업 내/외의 훈련)에서 실시하는 것과 비공식

적 기관에서 진행되는 학습(informal learning)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이 모든 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형태로서 자격, 학력, 학위, 훈련결과 또는 이수증, 면허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에서는 OECD의 정의에 비해 구체화된 협의로서 ‘자격’의 의미가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한편 현행법령상 ‘자격’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요건, 조건, 기준으로 포괄적 의미로서의 자격, 자격증, 포괄적인 개인의 능력, 의미강조, 자격증의 효력, 자격취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 학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격증’에 대한 의미를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사전적 의미를 조합하여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 분야에 따라 일정한 전문직업 자격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로 정의한다.

자격제도는 197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함께 시행되어 왔다. 당시의 기술자격은 특수목적별로 각 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처별로 해당 기술자격 검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각기 상이했을 뿐 아니라 유사자격증이 많아 경제적 손실로 인한 문제점이 많았다[7].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주도하에 기술과 기능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국가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발급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 기술자격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관리하게 되었다[8]. 이후 1977년부터 당시 한국기술검정공단(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국가기술자격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되었으며 1983년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학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관리하게 되었다[9]. 이후 자격제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교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기에 이르렀고 그 관리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다음해인 1997년 제정하게 되었다.

표 1. 자격의 종류 및 유형별 특징
Table 1. Types and features of certificates and licenses

구별기준	자격유형	자격내용
시행주체	국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가 법률로서 검정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 • 국가가 법률로서 정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검정 시행
	민간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민간부분에서 자격등록을 통하여 자율적 시행 •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
기능	업무독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이 없으면, 당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능력인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기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내용	전문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직종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나타내는 자격
	일반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정도를 증명해 주는 자격

자료출처: 이상윤 외(201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법체계 연구', 현안분석 2010-05, 한국법제연구원, p.21.

이에 따라 현재의 자격제도는 해당자격의 시행 및 관리,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그 외의 개별법령상에 의해 규정된 국가자격으로 나뉜다. 한편 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과 비공인 순수민간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자격의 기능에 따라 해당 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업무독점형 자격'과 해당 부문의 일정한 기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자격이 없다고 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능력인정형 자격'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를 토대로 비서사무관련 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들을 구분해 보면 비서 및 전문 사무인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 업무특성이 반영된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은 기능면에서 능력인정형, 내용적 측면에서 일반자격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2 자격증 관리체계의 문제점

현재 국내 자격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자격관리 및 운영체제의 부재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10][11]. 즉 자격제도가 여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다보니 인력양성 및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이 어려워 제도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수급,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 부처간 자격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능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관리 담당하는 부처로서도 다른데다 상호간 조정이 원활치 못해 자격검정 내용이 중복되거나 등급 수준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자격기본법에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신설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금지종목 신설에 따른 제재규정까지 분명치 않아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양산되어 현재 그 숫자가 1,700여개에 이르는 상황

이다. 이렇다 보니 자격증의 명칭과 출제기준이 유사한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모두 신설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자격증들 간 등급수준차가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동일한 과목을 검정하는 경우에도 출제기준이 자격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민간자격증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단체와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 하겠다[12].

III. 사무능력 관련 자격 시스템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민간자격증 중 전문대학 비서사무관련 전공자들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8개 대학 내 관련학과 교과과정내 개설된 교과목명칭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비서학, 경영학, 외국어, 컴퓨터 및 기타 등 5개 주요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중 컴퓨터관련 교과목은 총 19개 교과목이 파악되었고 전산, 인터넷 및 사무자동화 등 3개 주요 분야에 걸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참고로 앞서 제시한 ‘자격증’의 정의와 전문사무직무 및 관련학과 전공특성에 따라 국가자격증 중 능력인정형, 일반자격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상으로 국가 및 민간자격증 중 해당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들을 선별, 그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관련 전공 재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것들을 각각 목록화 하였으며, 민간자격증의 경우 공인된 자격증과 순수민간자격증을 구분하여 검토 후 설문보기에 반영하였다.

3.1 사무능력관련 국가자격증 현황

국가자격증 중 국가기술 자격증은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대표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 총 6개 기관에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중 비서사무관련전공의 교과구성상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들은 주로 산업인력공단과 상공회의소 주관하에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건축, 공예, 전문사무 영역 등 총 26개 분야, 총 480개 자격증이 시행중이며 이중 전문사무영역관련 총 13개의 자격증(8종류)이 파악되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17개(7종류)의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사무관련 자격증들을 추출하여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으며 이중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3종이 시행중이다.

표 2. 국가기술자격증 중 비서사무관련 전공 교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자격증 목록
Table 2. List of national licenses corresponding curriculums of secretarial and office majors

자격관리기관	분야	자격명	등 급
산업인력공단	비서학 또는 기타	직업상담사	1, 2급
		컨벤션 기획사	1, 2급
	외국어	무역영어	1, 2, 3급
대한 상공회의소	비서학	비서	1, 2, 3급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1,2,3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컴퓨터활용능력		1,2,3급	

자료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의 국가기술자격증관련 내용 중 발체 편집, <http://www.q-net.or.kr>

3.2 사무능력관련 공인민간자격증 현황

2011년 기준, 등록된 민간자격증의 숫자는 1,713개에 이른다. 이중 순수 민간자격증의 개수는 1,629개이며 공인된 민간 자격증의 개수는 84개이다. 공인된 민

간 자격증 84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총 12개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격관리기관은 49개에 이른다. 각 자격증들은 소관 기관에서 지정한 공인기간(3년, 5년, 7년, 10년, 11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중 비서사무관련 전공학과 재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격증은 컴퓨터, 외국어, 한자 및 전산 및 경영상식 등 주요 4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가 파악되었는데 이 중에는 등급 및 급수에 따라 자격증의 공인여부에 차이가 있는 부분공인자격증 형태들이 다수 파악되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어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자관련 자격증에서 다수 파악되었는데 해당항목은 그 종류와 급수가 타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고 세분화 된데다 유사한 명칭의 자격증이 각각 다른 관리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 혼란과 부작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효용성과 인식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와 관리보완이 시급해 보였다.

표 3. 국내 공인 민간자격증 중 비서사무 교과 관련 컴퓨터 자격증 목록 (2011년 기준)

Table 3. Certified national license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ector in secretarial and office major curriculum

자격명	등급	자격관리기관
e-Test Professional	1,2,3,4급	삼성 SDS주식회사
PC활용능력평가시험 (PCT)	A,B급	(주)피씨티
문서실무사	1~4급 영어, 한글	한국정보관리협회
인터넷정보관리사	전문가, 1, 2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디지털정보활용능력 (DIAT)	초, 중, 고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컴퓨터운용사		대한상공회의소
정보기술자격 (ITQ)시험	A, B, C등급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출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증 중 '공인 민간자격증' 관련내용 중 발췌 편집, <http://www.pqi.or.kr>

반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의 경우 모두 공인자격증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 및 사회적 인식 역시 타 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사무환경의 정보화 및 자동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일반화됨에 따라 이러한 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대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3 사무능력관련 순수 민간 및 외국자격증 현황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관련 페이지인 'Q-Net(<http://www.q-net.or.kr>)'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국가, 민간 자격증 및 외국자격증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외국자격증들은 국내에서 순수민간자격증으로 분류되지만 국제공인 자격증으로서 일반 순수민간자격증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BM, HP, SU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ORACLE 등 총 21개 주관기관 및 기업이 주관하는 외국자격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주관하는 3개(MCP, MOS, MCT) 자격증 중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가 비서과 교과과정과 연관성이 높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으로 파악되었다. Office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사무관련 소프트웨어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힌 자체 자료에 따르면 Fortune 500대 기업의 90%, 국내 100대 기업의 80%가 이용하는 범세계 공용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비서사무관련 전공학과에 개설된 컴퓨터 및 문서관련교과에서 실습 시 사용하는 사무관련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는 1997년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로 시작하여 Office 프로그램 중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아웃룩 등의 활용 능력의 수준을 검증하는 세계 공통의 자격 인정 시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증하며 국

내에는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사설 교육기관인 YBM의 MOS 사무국에서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70여 개국, 9,500여 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되는 국제 자격증으로서 최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Office 버전(Office 2003과 Office 2007) 별로 따로 시행되며 각각 Core, Expert, Master의 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두 비공인 자격증으로 표 4와 같이 10여종이 파악되었으며 이중 프리젠테이션 관련 자격증이 다수 시행중으로 이는 해당능력에 대한 사회 및 실무현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비서사무 교과 관련 순수 민간자격증 중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목록 (2011년 기준)
Table 4. Private license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ector in secretarial and office major curriculum

자격명	등급	자격관리기관
인터넷활용지도사	등급없음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
타자능력평가	1,2,3급	(사)국제정보능력평가원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PTM)	1,2,3급	한국커뮤니케이션협회
엑셀통계분석능력검정	1,2,3급	한국커리어개발원
프리젠테이션능력검정	1,2,3급	한국커리어개발원
인터넷정보관리사	3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컴퓨터소양인증시험	1,2,3급	(주)컴퓨터기능인증
프레젠테이션	1,2,3급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소양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컴활용실무능력	1,2,3급	(주)동아교육신문사

자료출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증 중 '순수 민간자격증' 관련내용 중 발췌편집, <http://www.pqi.or.kr>

지금까지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자격체계

상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측면이 파악되었으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민간공인자격증과 유사한 순수민간자격증들의 난립으로 응시자와 실무현장에 야기될 혼란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현황 파악과 이에 근거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간공인자격증 중에서도 관련전공 재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자격증들의 사회적 인식 및 효용가치에 대한 체계적 파악과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활용 및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계와 실무현장 및 자격검증기관 사이에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현황파악 노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체계화된 평가제도와 검정기준을 갖춘 민간자격증을 선별하여 활성화 시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효과적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IV.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조사 및 분석

4.1 조사대상 및 방법

이상과 같이 전문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현황조사와 비서사무관련 학과들의 교과목 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공자들의 자격증 취득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설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전공 재학생 중 보다 구체적인 진로의식과 높은 취업 관심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학년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3개 영역(즉 응답자 일반 영역, 취득 자격증 및 자격증에 대한 인식관련 영역,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관련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일반 영역은 조사 대상자들의 출신고교계열, 졸업 후 진로 및 취업희망 직종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취득 자격증 및 자격증에 대한 인식관련 영역은 재

학 중 취득 자격증 유무 여부와 종류 및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특히 이 영역에서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자격증들은 연구자들이 소속된 학과에서 지난 3년간 재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했던 자격증 취득 현황조사결과를 통해 파악된 주요 자격증(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프로세서, 전산회계, MOS)과 국내시행 자격증 중 비서사무관련 전공과 연관이 높은 국가기술 자격증 및 민간 공인자격증들 중 관련 전공 8개 학과 교과과정 교과목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추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취득한 자격증이 제시된 보기에 없을 경우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관심 자격증에 대해 종합적, 포괄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전문대학 비서사무관련전공학과에 재학중인 최고학년(2년제 학과의 경우 2학년, 3년제 학과의 경우 3학년)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신입생에 비해 취업 및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과 부담이 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맞은 최고학년 재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6개 전문대학 비서사무관련과의 2,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1에서 31일까지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별로 40명 기준, 각 1개 학급 대상으로 설문을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신된 235개의 설문결과 중 불성실한 답변은 한 12개를 제외한 총 222개의 설문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2 설문조사 결과분석

4.2.1 대학재학 중 자격증 취득비율

설문에 참여한 전체응답자들의 출신고교를 살펴보면 인문계 고교 출신자들이 158명(71.2%), 실업계가 61명(27.5%), 검정고시 및 기타고교 3명(1.4%)으로 인문계 출신 졸업생이 가장 많았으며 절대다수인 189명(87.1%)이 졸업 후 진로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에게 대학진학 한 후 취득한 자격증 유무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총 응답자 222명 중 67.1%에 해당하는 149명이 '있다'고 답하여 대학에 진학한 뒤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졸업학년인 점과 조사시기가 학기 초반인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항목과 응답자들의 출신고교 항목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한 답변에 출신고교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파악되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 답한 실업계 고교 졸업자는 총 61명으로 이중 '예'라고 답한 경우는 28명(46%), '아니오'는 33명(54%)으로 해당 집단내에서 자격증 미취득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인문계 졸업자들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총 응답자는 158명으로 '예'가 120명(76%), '아니오'가 38명(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인문계 고교 졸업자들이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에 비해 대학 진학 후 자격증 취득에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에 '예'라고 답한 총 응답자 149명 중 인문계 고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0.5%였으며 실업계의 경우 18.8%로 자세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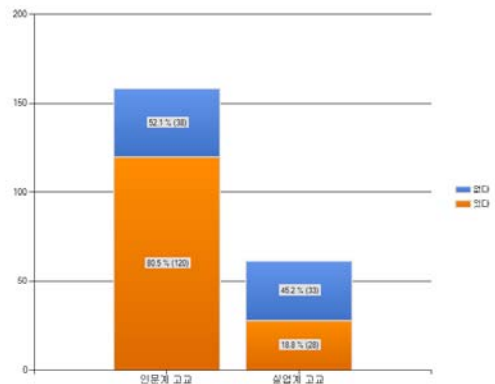


그림 1. 출신고교계열에 따른 자격증 취득여부
Fig. 1. License attainment rate upon the types of high schools

실업계 고교 졸업자들의 경우, 고교 재학시절 이미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정보나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인문계고교 졸업자들에 비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 진학 전 이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실효성 있는 진로지도방안 설계를 위한 관련학과 재학생들의 출신 고교계열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4.2.2 취득 자격증 종류

다음 그림 2는 대학 진학 후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취득한 자격증 종류를 조사한 결과이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제시된 보기 중 취득 자격증이 없을 경우 개별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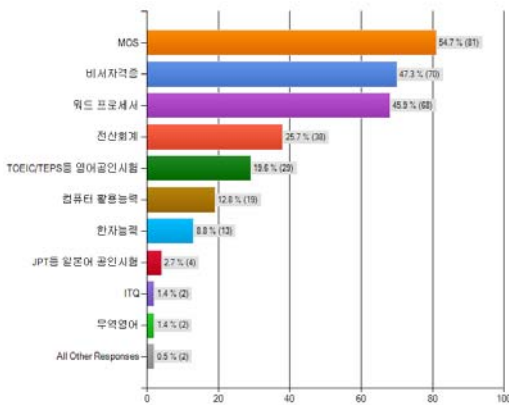


그림 2.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
Fig. 2. Certificates or License attained in college

가장 빈도가 높은 자격증은 MOS가 1위로 81명 (55%), 그 다음은 비서 70명(47%), 워드 프로세서 68명 (46%), 그 다음은 전산회계, 영어공인시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은 MOS,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파악되었으며 특히 워드 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의 경우 비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 대체과목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과 함께 연동하여 취득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산회계 자격증의 경우 회계분야 지식과 함께 컴퓨터를 사용한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이므로 실질적으로 주요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의 거의 모두가 실질적으로 컴퓨터 및 정보화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다수가 취득한 MOS는 순수 민간자격증 중 외국자격으로서 다국적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하는 국제공인자격증으로 2000년 국내에서 첫 시행된지 불과 10여년 만에 비교적 빠른 정착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응답내용에 제시된 자격증들 중에도 단연 컴퓨터 관련 자격증들이 다수였는데 특히 국내 대표 대기업인 삼성SDS가 인증하는 민간공인자격증인 e-test가 다수 파악되었다. 2001년 국가공인자격 인증을 받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e-test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OS가 빠르게 확산된 점과 비교할 때 향후 주목할 만한 관련 자격증으로 보인다.

한편 본인의 자격증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시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자격증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취득 자격증항목의 순위와 비교하여 어학능력 시험의 비중과 순위가 높아진 점이 두드러진 차이였으며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간 순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관련 자격증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취득 자격증이 취업시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총 응답자 216명 중 194명 (90%)이 '그렇다'고 답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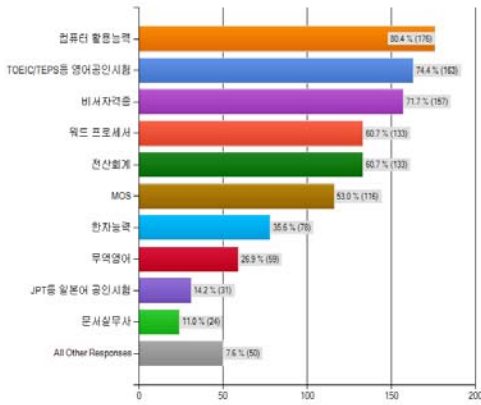


그림 3. 취업시 활용기대가 큰 자격증
Fig. 3. Certificates or License of high expectation in job search

4.2.3 컴퓨터 및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서사무관련전공 2, 3학년 재학생들이 취득했거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자격증에는 비서자격증을 포함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MOS, 전산회계 등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사무조직이 요구하는 전문사무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중 관련 영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및 정보화 능력과 관련된 자격증 영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았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이 희망직종으로 진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자들의 기대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해본 결과 평균치는 4.23로 파악되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합산하면 총 89%로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의 취업시 활용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식

Table 5. Perception on Computer/Information related License

선택항목 및 척도	백분율 (%)	응답자 수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40.3%	87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48.1%	104
보통이다	9.3%	20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3%	5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0%	0
총계	100%	216

이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의 내용과 같다.

표 6.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시 장애요소

Table 6. Obstacles in attaining Computer/Information related License

선택항목	백분율 (%)	응답자 수
비용이 많이 든다	59.0%	82
시험이 너무 어렵다	31.7%	44
년간 시험횟수가 너무 적다	14.4%	20
응시절차와 과정이 번거롭다	11.5%	16
기타	10.2%	14
관련 수험교재가 부족하다	7.2%	10
총 응답자		139

응답자들이 관련 자격증 취득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답한 것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히 MOS 취득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과 함께 MOS 자격증의 경우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하고 국내 사설교육기관이 검정과정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제공인 자격증이라는 특성상 다른 자격증에 비해 비용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기능력 위주의 검정과정이 필수적인 자격증 특성상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답변이 많았던 것도 주목할 만한 특성이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조사결과를 통해 파악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능력 관련 국내 자격증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일관성 없이 배치된 관리부처와 허술한 관련 법규 및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우후죽순 양상된 엄청난 숫자의 민간자격증은 응시자와 실무현장 모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출신고교계열에 따라 자격증 취득양상에 차이가 파악되었다. 따라서 관련 교수진은 재학생들의 출신고교계열정보를 체계적 파악하여 보다 구체화된 진로지도방안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파악된 다양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사회적 실효성 증진을 위해 관련 인사들과 협조노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은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향후 취업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들이 취득한 자격증과 취업시 활용 기대가 큰 자격증 중 컴퓨터 및 정보화 관

련 자격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현황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사무현장에 적합한 전문 사무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중 컴퓨터 및 정보화 능력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은 비서자격증 취득시 실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어 특히 취득률과 취업시 활용기대가 높았으며 2000년부터 국내시행이 시작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국제공인 자격증인 MOS가 빠르게 일반화 되는 추세를 보였고 아울러 2008년부터 시행된 삼성 SDS공인 e-test 응시자가 새롭게 파악되기 시작했다.

이상을 통해 파악된 자격증 가운데 취득율과 취업시 활용기대치가 높은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자격증의 경우, 그 사회적 활용도 실효성에 대한 체계적 현황 파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련전공 교수진, 관련 자격 담당 기관인사 및 검정기관전문인사들간 소통노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실무현장의 변화요구 및 교과과정과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응시자들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 비용 및 추가학습노력 등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는 종합적으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방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데이터로서 향후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관련 전공들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제시된 시사점들을 토대로 다양한 후속 연구시도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 [1] 최진석,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 취업준비 예상 비용 57만원”, 한국경제, 2010.7.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027732i>

[2] 김대희, “대학생 다섯 중 넷 “취업과의 받으니 도움 되더라”, CNB News, 2011년 2월 16일자 기사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41565#>

[3] 이상윤, 조정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법체계 연구”, *현안분석2010-05*, 한국법제연구원, 2010.

[4] 유근선, “국내외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비서사무관련 전공의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제 18권 2호, pp.183-205, 2009.

[5] 김지현, “자격제도와 직업의 자유-자격제도를 통한 직업의 자유 제한의 체계 및 위험심사기준”, *안암법학* 제 32호, 2010.

[6] 권해수, 박영범, “우리나라 국가자격제도 개편방안 연구: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7] 김택득, 조정윤, *21세기 자격제도* 미래인력연구센터, 2000.

[8] 김택기,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 활용증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9] 나승일, 정철영, 구자길, 서상훈, 한두흠, 김강호, *국가기술자격 기초사무 IT분야 자격체계 개편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008.

[10] 신명훈, 김현수, 박종성,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11] 주인중,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안과 외국의 개선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11(2), pp.42-49, 2008.

[12] 이혜진, “민간자격 2,000개 중 84개만 국가 공인, 취업·고소득 보장 대부분 허위, 공정위, 17개 단체에 시정명령,” *서울경제*, 2011.2.17.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102/e2011021717030170070.htm>

[13]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제도,
www.microsoft.com/korea/mcp

[14]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15] 배성민, “IT편중·고물가·청년실업→체감경기 최악, 한은, IT서 매년 7만명 일자리 줄어..청년실업률은 전체의 2배”, *머니투데이*, 2011.3.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33014371938412&outlink=1>

[16] 손봉석, “대학생들의 2011년 계획 2위 자격증 취득, 첫째는?”, *경향신문*, 2010.12.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311602521&code=940100

[17] 전영아, “전문대학 비서과 교육과 관련 자격증간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비서학논총*, 제 10권 2호, pp.67-90, 2001.

[18] 최애경, 백지연, 노은지, *비서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19]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http://www.q-net.or.kr>

[20] MS자격증 MOS,
<http://www.ybmit.com/mos/intro/main.asp>

[21] OECD. The role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in promoting lifelong learning, 2004.

저자소개



유근선(Keunsun You)

1996년~1997년 BMW Korea, Rover Division

1998년~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전문직업개발원 국제회의 전문가 과정 책임연구원

1999년~현재 인덕대학 비서과 부교수

※ 관심분야: 여성 리더십,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 고학력 여성 진로설계 및 커리어 개발



김경화(Kyung-Hwa Kim)

1987~1989년 The Bank of New York, Seoul Branch 심사부 근무

1990년~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비서학과 강사

1999년~현재 인덕대학 비서과 부교수

※ 관심분야: 비서학 교육과정개발, 교수방법론, 평생 교육